



2010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돌아보며

최연구 집사

3월 말로 기억합니다. 교인위원회 장양술 장로님께 붙잡혀서(?) 난데없이 “수양회 총진행”이라는 엄청난 임무를 떠안게 된 것을... 부족함이 많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일을 하게 되면 “세 아이 돌보는 일”을 내내 아내에게 전달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난감해 했지만, 넓은 아량으로 허락한 아내의 지원에 힘입어, 주어진 일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으나, 수양회 강사 목사님과 각 프로그램을 담당할 분들을 섭외하는 일들이 지연되면서 5월 하순이 되어서야 첫 준비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 해를 건너 뛰고 2년 만에 준비한 수양회라 메워야 할 공백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일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좋은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수양회 각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채워주심으로써 수양회 준비가 큰 탄력을 받아 모든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동안 뉴햄프셔의 핼그림 파인스에서 진행된 올해 수양회에는 뉴헤이븐 한인교회의 담임목사이신 노대준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기초하여 “변화 -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양회 기간 동안 여섯 번의 주제 강연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 생활과 예배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각자의 마음에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을 잔잔히 불러 일으키는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계속

9월호 차례

- ▶ 2010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돌아보며
- ▶ 권두언
- ▶ 당회소식
- ▶ 건축위원회
- ▶ 새교육관에 부친다
- ▶ 집사와
- ▶ 에스터 여성교회
- ▶ 마리아 여성교회
- ▶ 성인 세례자 신앙 간증문
- ▶ 유아세례 간증문
- ▶ 그루터기 청년1부
- ▶ Sunflower 유년 소동 주일학교 소식
- ▶ 폐직 수련회
- ▶ 니카라과 선교 보고
- ▶ 교우동맹
- ▶ 광고
- ▶ KCB 갤러리



오랜 기다림의 감격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어느 교우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이 지연될 때마다 도리어 많은 힘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 분은 교회 건축이 지연될 때마다 도리어 힘을 얻었을까요?

교우님은 치과를 개업하셨는데 예상보다 준비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고 그럴 때마다 지치곤 하였는데 교회의 건축도 지연된다는 소식에 도리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다린다는 사실이 바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새로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담임목사인 저로서는 광고시간에 말씀드리기에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거의 지난 일년간을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우님은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이 지연되는 고통은 저만의 고통이 아님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교우가 함께 나누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고통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다렸다는 사실은 더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관 건축이 끝남과 함께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수년간 기다림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어떤 기다림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다림의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브루클라인 주민의 40%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함께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늘 기다림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 소식

1. 7월 26일(월) 보스톤 노회의 정기 모임이 본 교회에서 열렸고, ECC 건물의 비공식적인 Open House 를 가졌습니다. 건축위원장 한승희장로의 ECC 건축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고, 만찬은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노회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 건축을 통한 community outreach program을 위해 Lynn Redevelopment Grant Fund(3년간 총 \$ 20,000)의 첫해분 \$12,000을 받았습니다.

2. 보스톤 노회의 Congregational Higher Education Initiative Grant에 우리교회 청년 1부의 “얼린 축제” 예산 \$1,000을 matching fund로 신청하였고, 이를 CEM에서 인준받았습니다.

3. Brookline Town Administrator로 은퇴하는 Richard Kelliher에게 감사장을 수여키로 하였습니다.

4. 부부청년부 담당 목회자 소기범 목사님이 8월말로 귀국하시고, 후임으로 김건철 목사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5. 우리 교회 행정지정 부목사인 윤경문 목사님의 계약이 2010년 10월 31일로 만료됨으로, 앞으로 3년 2개월간(2010년 1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하며, 8월 1일 임시 공동의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6.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사택이 이전되었습니다.
128 Booth Road, Dedham, MA 02026
Home: (781) 467-0002

7. 지난 12년간 Sunflower 유년.초등주일학교를 섬기셨던 김선희 전도사님은 7월 31일부로 사임하시고, 현재 유년.주일학교를 담당하실 후임자를 물색중입니다.

건축위원회

안승의 강로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ECC 건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몇가지 Inspection 이 끝나면 곧 Certificate of Occupancy 를 받게 되어 새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와 관심으로 기다려 주신 많은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된 작업들로는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Duct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고, 이와 관련 electrical work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내장 공사와 바닥 마무리 작업도 다 끝났습니다. Audio/Visual system 작업이 곧 끝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CO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새 건물 안쪽에 있는 Courtyard안에 Landscaping 작업도 완료되었습니다. Courtyard에는 손질이 많이 안가는 화초들과 Bamboo 나무를 심어서, Green

환경 분위기를 연출하게 하였습니다. Harvard St. 쪽 마당에는 예산 관계로 인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을 중심으로 꾸미기로 하였습니다. 김길람 장로님과 집사회 환경 미화부의 협조 하에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Gardening에 취미가 있으신 분은 집사회 회장이신 김태만 집사님께 연락바랍니다.

ECC 건물 안 어린이 채플 안에 safety를 위해 계단에 line을 넣는 일도 다 끝냈고, 교회 사무실 공사와 본당 뒷쪽에 설치할 PA Room 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랫층 부속도 모든 공사가 다 끝나 현재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교우님들의 기도와 협조 가운데 이제 ECC 건축의 완공을 보게 됨을 감사드리며, 현재 모자라는 ECC 건축 현금을 위해서도 교우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교육관에 부친다

김약욱 집사

날씨에 천둥번개가 섞였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 부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싶게, 마알간 해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푸르름은 여름비가 공궤(供饋)합니다. 살롬.

검이불루(儉而不陋)라 했다. 검소하다만 누추하지 않다는 말이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검박하고 정갈하다만, 절대로 구질구질 하지 않다는 소리다. 우리의 본당 건물을 처음 보고 들어서면서 내가 받았던 인상이다.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는 않다만, 검소해 보였고, 단아해 보였던 거다. 제대로 손때 묻은 고가구요, 한옥의 마루처럼 검어졌다만, 여전히 반질 반질 윤기나는 대청 마루처럼 정결하고, 아름답다. 붉은색 벽돌이 브루크라인의 역사처럼 깊고 넓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렇게 지어 주셨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 교회의 나이가 환갑을 향해 가고 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의 성전에 화려하고 현대적인 교육관을 거기에 붙였다. 화이불치(華而不侈)라 해야겠다. 화려하고 대담하다만, 전혀 사치스럽게 촌스럽지 않다는 소리다. 어

름날 찌르는 스킨로션 냄새는 아예 그윽한 냄새를 막고 값싼 로션은 냄새만 독하다. 너무 사치스럽다면, 오히려 촌스럽다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의 새 교육관은 화려함이 현대를 넘어 전위적으로 보인다. 외양의 겉모습이 자못 상승하고, 실내의 플로어 플랜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이다. 잘된 건축 작품으로 무슨 건축 잡지에도 우리교육관 사진이 나왔더라.

이제, 검소하고 성스런 구관과, 화려하지만 튀지 않는 새 교육관이 나란히 섰다. 신구(新舊)의 빈틈없는 조화이고, 구(舊)를 밀받침으로 한 신(新)의 도약이라 해야겠다.



4페이지에서 계속

2010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돌아보며



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지만...

크게 바뀌지 않고 전교인 여름수양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더욱 진가를 발휘한 순서들도 있었는데, 전교인 공동체훈련과 조별 발표 시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조원이 한 마음이 되어 몸을 사리지 않고 게임을 풀어가는 전교인 공동체훈련. 올해에는 새로이 일반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한 정광근 집사님과 베테랑 한혜성 집사님의 공동 진행으로 더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꾸려주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예년의 수양회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날 밤의 “새교우환영 및 찬양의 시간”을 “새교우환영 및 조별모임”으로 바꾸어서 조별 모임을 이틀에 걸쳐 두 번 배정함으로써 조원들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수양회 주제강연이나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의 조별발표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조도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 같은 조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매년 모든 조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한데 어우러져 수양회에서 받은 메시지를 기발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마지막 날의 조별발표시간에서는 올해에도 리얼한(?) 연기로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 배우들이 탄생했으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명연기를 펼친 ‘최연일 장로님과 이정규 장로님’ 두 콤비였습니다 - 연기의 내용을 지면에 실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날 밤의 전교인 한마당 축제는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바뀌었는데, 2008년도의 첫 시도 때보다 충실한 기획과 준비로 인해 참석한 교인들이 함께 어울려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은혜로운 경험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여전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경험한 것은 필요한 부분마다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수양회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섬겨주신 준비위원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양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함께 한 이번 수양회를 돌아보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교우님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다시 맞을 제 2의 오십년을 향해 간다. 이(二)세대는 틈새에 끼었다만, 일세대와 삼세대의 만남이라 해야겠다. 오 육십 년대를 거쳐, 칠 팔 십년대와 이제 새 세기의 삼세대를 위해 지은 것이고, 일세대에게 감사하고, 삼세대에게는 복이다. 다시 한번, 두번째 세대는 하나님이 ‘고맙고 수고했다’ 하실거라 믿는다.

기막힌 조화이고, 오랜 시간과 세월을 아이들이 거처서 자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아 사세대, 오세대로 계속 되리라 믿는다.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100주년을 기다린다.

집사회(구제부)

강예영 집사

“Boston Rescue Mission” 을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엄청나지만 사실은 집이 없는 보스톤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주는 mission입니다. 김동숙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해오신 봉사에, 저희 집사회도 구역별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지난 해부터 두 세 달에 한번씩 이곳을 방문하고 100여 분들을 serve하고 있습니다.

보스톤 중심가의 사무실들과 다르지 않은 한 건물의 지하, dining room에 말끔히 나열된 플라스틱 식탁, 반질 반질 윤이 나는 의자, 그리고 커다란 스테인레스 스틸 냉장고는 100여명을 100년은 serve해도 두렵지 않은 모임새입니다.

길다란 한 쪽 벽에는 십계명의 계명 하나 하나가 큰 글씨로 써있고, 맞은편 긴 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군중들과 함께 오병이여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있어, serve를 하러 온 우리나라, serve를 받으러 줄 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듣게 합니다.

오후 4시, 저녁을 나눌 때가 되면 이곳에 주거하는 분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끔하고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처럼 친구도 있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다음은 거리에서 막 들어오신 것 같은 분

들 차례입니다. 멍하니 Cart를 끌고 들어온 할아버지, 대학생처럼 가방을 등에 맨 젊은이, 조그만 종이 봉투, 플라스틱 백이 가진 것의 전부인 양 꼭 쥐고 있는 머리가 희끗한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말하기 꺼리고 눈을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듯한 사람도 있나 하면, 또 어떤 이들은 “I love Korean foods. 불고기 Best!” 하면서 친근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을 때 제 마음속의 이 분들은 모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다급한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게 된 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처럼 커다란 그 무리에 제가 던지는 작은 도움은 과도에 쓸려 곧 사라질 조약돌 외에 뭘까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Boston Rescue Mission의 작은 지하 공간에서, 불고기와 만두가 든 접시를 서로 맞들고 나니, 그 분과 제가 막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었음을 알게 됩니다. 갈 때마다 우리는 김동숙 집사님의 van에 푸짐한 음식을 가득 싣고 갑니다. 돌아오는 길, cargo space 는 이제 텅 비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되돌려 받은 뭔가로 더욱 가득차서, van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사막에서 채우시던 떡 광주리가 그랬겠지요.



에스터 여선교회

무덥고도 조용한 여름이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에스터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여름이었습니다. 부엌비품이 자주 부족했음을 사과드립니다. 교육관 건축중이라 비품 보관 창고가 비좁고 정리가 불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엌 냉장고 문에 비품 요청 리스트가 있으니 부엌에

서 일하시다 비품이 2주이상 사용양에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19일, 제직임직식 주일에 전교인 오찬으로 비빔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에스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1. 보스톤 노회 저녁만찬 접대: 7월 26일(월)에 우리 교회에서 보스톤 노회 월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저녁만찬을 마련하여 약 80여명의 노회 회원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주 중 입에도 불구하고 직장일 조퇴하고 교회에 오셔서 봉사해 주신 여선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NKPW 여성교육원 리더쉽 세미나와 실행위원회가 8월 5일(목) ~ 7일(토) 2박 3일간에 걸쳐 디트로이트에서 있었습니다. 약 30여명의 회원과 강사진들이 참여하여 너무나도 유익하고도 도전적인 깨우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의 여는 예배는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유승원 목사 시무)에서 가졌는데 여선교회원들의 맛깔스럽고 정성이 가득한 저녁 만찬으로 대접을 받으며 사랑의 나눔을 가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시작된 5번에 걸친 세미나의 강사진으로는 교육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은주 목사님(여성리더쉽과 교회 1. 2), Homeless Shelter 를 통해 Homeless people Mission 을 하시는 김진숙 목사님(성서와 여성 리더쉽 1,2), 총회에서 수고하시던 최훈진 목사님(PC USA 정치 형태와 여성 리더쉽)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한나 집사가 동북대회(KPWSNE) 여선교회 대회장으로, 또한 전국여성연합회(NKPW) 실행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3. 동북대회 (KPWSNE)여선교회 주최 연합선교대회가 10월 16일(토)에, 뉴욕한인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중국 연변 희망복지원을 운영하시며 수고하시는 이윤식 회장을 모시고 그곳의

사역소식을 나누고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여선교회원들의 참여를 바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한나 집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PPG(Presbyterian Partnership Group) 모임

이 10월 23일(토) Worcester 장로교회에서 오전 10시 ~ 3시까지 있습니다. 미동북대회(PWSNE)에 5개의 PPG가 있는데, 그중 저희 보스톤노회가 속해있는 PPG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의 윤경문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물놀이팀의 공연과 퀴즈영생교회의 worship dance 공연도 함께 합니다. 모임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김한나 집사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 GATHER BY THE RIVER"
A MULTI-CULTURAL CELEBRATION**

*PRESBYTERIAN WOMEN OF
NEW ENGLAND PPG GATHERING*

**OCTOBER 23, 2010
10 A.M.-3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125 HOLDEN STREET, WORCESTER, MASSACHUSETTS**

This gathering is being held in hopes that by having Regional gatherings (FIVE) with a common theme but different interpretations, we can gather, communicate and form CLOSER TIES THAT BIND

성인 세례자 신앙 간증문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은 그냥 조용한 물결같은 평화로운 삶이었 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적 고통도 없었고 그저 그 런 삶에 대한 갈등 없는 그런 삶이어서 딱히 종교가 필요없다는 오만으로 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속에 있으며 내가 착하게 살 면 그것이 천국이고 내가 나쁜 맘을 가지면 그 곳이 지옥이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해 없이 내 삶을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가자는 친구는 많았고, 자주 따라 가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어색했고, 크리스마스 시 즈에는 일부러 안 나가기도 하는 객기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언을 하는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는 나를 더 종교에서 멀리하게 했으며, 또한 부족한 것 없는 삶이었기에 삶이 힘들어 종교에 매달리는 친구를 보며 나도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가지기 힘들 거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그러다 평범한 결혼을 하고 딱히 독실한 불교신자 도 아니신 엄마와 초파일 같은 때 절을 찾기도 했 는데... 2000년 여름 미국을 오게 되면서 부터 정 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L.A.오 렌지 카운티의 영락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시 이모부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주말마다 한 시간씩 달려서 주일 예배를 보긴 했는데, 그 당 시 나를 붙들었던 것은 종교가 아닌 조용하고 마음 좋으신 시이모부님 내외분이셨고... 그 때부터 나 름 교회를 다니게 되다가 다시 서울로 오면서는 여 러 가지 여건상 다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습 니다.

그로부터 6년 후 다시 미국에 오게 되면서 왜 그런 지 이상하게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남편과 나 모두에게 든 것은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나 이를 먹으면서 무언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된 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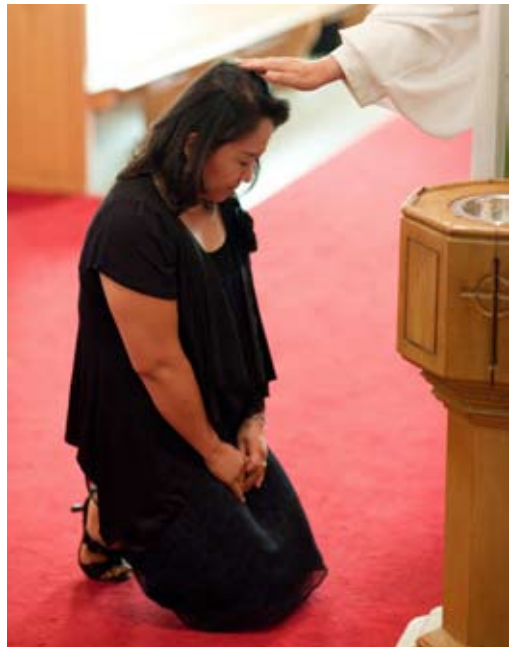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된 보스톤 한인교회는 조금은 이방인같은 나에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다니기에 충분할 만큼 차갑게 느껴졌고 모든게 어색한 내겐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든 교회였습니다. 이력저력 적응하고 구역예배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한 별다른 지식도 없는 내가 조금씩 성서에 대한 지식 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기도도 시작되었습니다. 내 기도의 시작은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합니 다. 그러니 제가 당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 오.”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 요구사항이 많은 욕심 스러운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많이 쑥스럽 지만 언젠가는 진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서 기독 교 정신에 맞는, 내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많은 사 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 면서 ...

앞으로의 나의 삶...

주일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구역 성경공부도 참여 하며,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어린 시절 나도 모르게 읊조리던 고린도전서13장의 내용과 같 이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구원하 여 주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여 같이 기쁨을 나누 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루터기 청년1부

지민영 교우

저희 청년1부의 지난 두달간의 소식을 짧은 글로나마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1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보스톤의 집으로 돌아온 학생들과 여름학기를 수강하며 보스톤에 머무는 학생들과 함께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청년1부는 여름학기를 맞이하여 한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통독이었는데, 하루 하루 본인이 세운 목표만큼의 성경을 읽어나가 여름이 끝날 무렵 구약과 신약을 모두 통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일 모임시간에는 성경공부를 하는 대신 몇몇 친구들이 대표로 앞에 나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함께 성경을 명상해 왔습니다.

또 이외에는 전교인 수양회를 위한 바자회를 열었는데, 저희 청년 1부는 청년 2부와 함께 스무디를 만들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데 힘썼습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교인분들과 어린이들의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바자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는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열어 주먹밥과 수정과를 판매하였고, 그 기금을 니카라과 선교팀에게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1부는 다가오는 10월달에 있을 제 6회 열린 축제를 위해 여러가지로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만의 열린 축제를 준비하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체험하며 보스톤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열린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과 지혜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열린 축제가 끝난 후 10월 말에는 가을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Sharon수양관에서 2박 3일동안 열릴 이 수련회에서는 초청 목

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나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청년 1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간증문

김 지민 (Katie Kim) (김 건열, 신 은경)



지난해 12월 첫째 딸 지윤이의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는 4개월 된 둘째 지민이의 유아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인 저희 가정은 결혼 후 6년 동안 아이가 없어 오랜 동안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던 무렵,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었던 큰 아이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선물이었을 뿐 아니라 저희 부부가 미국 땅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믿음의 징표였습니다.

뉴저지에 처음 정착하여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목회자의 유학생생활이란 것이 한국에서 막연히 상상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녹록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딸을 만난 과정을 통해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었고, 진학을 위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으로의 이주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육의 수도라는 보스턴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도시이지만, 함께 생활해야 할 가족들에게는 여러 희생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주변의 말들이 저희 부부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기도와 고민 끝에 보스턴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입학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사 시기를 조율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또 다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둘째 아이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새로운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 하였다면, 둘째 아이는 저희 가정의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윤(진실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민(하나님의 뜻이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둘째 딸 지민이는 저희 부부가 부모로서 더욱 성숙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한 명 일 때는 혼자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이가 둘이 되고 보니 이제는 더 큰 짐으로 느껴져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사랑으로 서로 돕는 손길, 나누는 마음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고, 성경에서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부르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민이를 통하여 저희 부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더욱 성숙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정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만 집중되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동기로 삼곤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두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지민이를 통해, 저희 가정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이 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울러 지윤, 지민이를 통해 늘 저희 부부의 처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늘 세심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2010년 제직 수련회

지난 7월 10일(토) 제직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폭우로 인해 교회의 일부가 flooding이 되어 여러 교우님들이 함께 교회 건물안의 물을 제거하느라 제직수련회가 조금 늦추어진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예년과 같이 새 제직들의 자기 소개와 간략한 간증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새로 임직받은 제직분들과의 인사를 통해 제직들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Pittsburg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치시는 손대권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하는 다각도적인 시도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사역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들을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손대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니카라과 선교

안영환 집사

니카라과 선교 니카라과 단기선교를 다녀온지 꼭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선교지에서서의 감동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비행기표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23명의 단원이 3개 group으로 나뉘어 저서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7월 31일 니카라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다가왔습니다. 두번째 그룹의 비행기가 오른쪽 엔진이 자동 접화가 안된다고 해서 수동으로 접화한 다음 1시간 30분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아틀랜타에서는 3번째 그룹의 8명중 2명만이 좌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사에 항의하고 통사정하고 한 끝에 23명 모두가 같은 날짜에 니

카라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일주일간 매일 아침일찍부터 시작한 선교활동, 3번의 연합예배, 그리고 2번의 저녁식사후 Review meeting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나는 것은 현지의 전구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 집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안될듯 안될듯 하면서도 모든것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가 없었다면 이 모든것이 불가능 했음을 깨달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교인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인동정 및 광고

■ 출산

1. **장성연/박양신** 교우 가정에서 6월 초에 득남 (Mathew, 준영) 하셨습니다.
2. **강민형/김진섭** 집사 가정에서 6월 중순에 득남 (Mathew, 준서) 하셨습니다.
3. **김용욱/김은정** 집사 가정에서 7월 말에 득남 (Joshua, 호중) 하셨습니다.
4. **손영권/박미정** 집사 가정에서 8월 중순에 득남 (Nathan, 희수) 하셨습니다.

■ **소천:** 전 회 집사님 부친(고 전인재 교우)께서 한국에서 8월 말에 소천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성례식

유아 세례자: 김예지(김은석/장지민), 김지민(김건철/신은경)

성인 세례자: 변옥화, 장준연, 전아사, 홍주희

- **결혼:** 이선영 장로님께서 6월에 신광성 화백과 화축을 밝히시고 새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광고:** 청년 1, 2부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실 봉사자들의 Sign-up을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동욱 장로님께 연락 바랍니다.

Sunflower 주일학교

이은주 집사



즐겁고 서로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수양회에 참석치 못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여 예배와 성

경공부를 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010년도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가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교육관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예년보다도 많은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I choose Jesus" 라는 주제하에 성경공부, 찬양, 성경암송, Arts and Crafts 등의 활동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volunteer로 도움을 주어서 서로들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음식을 준비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8월 20일~22일간 있었던 전교인 여름수양회에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좋은 프로그램으로

3.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맞아 새로 지어진 교육관에서 멋진 새학기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9월부터는 주일학교가 새 교육관에서 오전11시부터 새로운 "ROOTS 프로그램" 이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있던 예배와 성경공부 외에 여러 다양한 특별 찬양과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믿음과 복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이 교회에 제시간에 올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 성인 성경공부에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VBS



• 전국연합여성회 지도자양성모임



• 세례식



• 니카라과 선교 모습



• 제직수련회



• 수양회 Fundraising



• 전교인 수양회



• ECC 놀이터